

가 경제의 현황과 실태

조 계 근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서 론

'97년 IMF를 겪은 우리경제는 최근 몇 년간 외형적으로는 여러분야에서 신속한 구조조정과 개혁의 진행으로 '98년말 부터 경기는 회복추이를 나타내고 있고, 2002년에는 IMF부채를 조기에 상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2001년 상반기 이후 우리경제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도덕적 해이와 방해세력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재정과 무역의 양대 적자 확대, 일본의 경기회복 미진, 유럽의 경제통합에 따른 국가간 갈등 등으로 인한 해외 경제 여건의 미성숙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경기회복 상태로 전환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02년에 들어와서 상반기까지는 국민들의 소비증대와 일부 반도체 및 IT산

업의 호황으로 경제성장이 어느정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산업가동률은 떨어지고 투자나 수출은 급격히 감소할 뿐만 아니라 영동지방과 영남지방은 태풍루사와 폭우로 말미암아 산업과 경제의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들어 해외경제도 미국과 이라크 전쟁 가능성 고조, 국제유가의 급등, 미국과 일본 및 유럽의 경기악화를 예고하는 주가 급락 등은 우리경제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지방경제도 경기와 경북 등 전자와 IT산업이 집중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총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 2차산업보다 3차산업이 중심인 강원도 경제는 경기악화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진정한 지방자치체를 위해서는 지방 자치단체가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지위를 확보해야 되고, 이런 바탕하에서만 지방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분이라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건실한 재정기반이 확보되고 자주재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는 2001년말 현재 60%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강원도는 30%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시군들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이후 부채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세원 도입의 어려움과 함께 지방세 구조가 경기하락기에 취약한 재산세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자치단체의 장들은 지역주민들의 각종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고, 다음 선거를 의식하여 전시적 투자를 증대시킬 수 밖에 없으므로 지방경제는 근본적으로 취약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최근 국내외의 경제상황을 관조해 보고, 우리나라의 지역별 경제실태를 산업별로 분석해 보는 일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초보적이지만 지방의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지역경제 전문가의 시각에서 의견을 개진해 보고자 한다.

II. 국내외 경제동향과 전망

1. 해외경제 동향과 전망

가. 선진국의 경제현황

미국 등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선진국들의 경제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경제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실적지표인 산업생산, 내구재 소비 등은 둔화되고 소매판매액 등은 호전되고 있지만,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악화되면서 향후 경기회복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증대되고 있다.

경기의 미래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주식시장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3분기 기업수익의 전망이 계속 악화추이를 나타내면서 금년 5월이후 다우존스지수, 나스닥 지수 등 각종 지표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예측기관들은 미국 경제가 금년 하반기에는 2%성장에 그치지지만, 2003년도에는 금년보다 높은 3%대의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미국경제의 재침체(double-dip recession)의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의 엔진역할을 하는 일본경제는 6~7월중 개선 움직임이 주춤하였으나, 8-9월 들어 다시 호전되는 기미를 나타내고 있다. 생산은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부진하였던 자본재 출하도 크게 증가하고, 엔화강세의 영향으로 수출도 금액기준으로는 포함세이나, 물량기준으로는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즉 일본은 금년 3분기 들어와 생산과 판매지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기계수주 등은 감소하여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연말과 내년도의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럽지역의 경제는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주요국 주식시장의 동반 침체,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수요가 부진하므로 유로지역의 구매관리자지수(PMI)등 주요 심리지표가 모두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하락추이를 보이는 것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또한 산업생산지수, 실업률 등도 계속 하락추이를 나타내어 경기부진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연말과 내년 경제도 대부분의 예측기관들이 쉽게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 환율과 원자재 가격

미달러화는 일본정부의 엔화 약세 유도 및 일본 경제시스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엔화에 대해 6월이후 강세를 지속하여 8월말에 달러당 117.94엔에서 9월말에는 달러당 121.78엔으로 상승하였다. 한편 유로화에 대해서는 9월 이후 1유로에 0.97~0.99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 증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생산 쿼터유지 결정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여 북해산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배럴당 30달러에 근

접하고 있다. 원자재중 동,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가격은 세계경기 전망 불투명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곡물중 옥수수 가격은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소폭 하락하였으나, 소맥가격은 작황부진과 미국의 이라크전 임박설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도체 가격(256M SD램)은 전세계의 PC 수요가 계속 부진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2. 국내경제 동향과 전망

가. 국내수요

소비는 상반기와 같이 7-8월 들어서도 소비재 판매액과 내구재 소비의 신장세가 계속 확대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와 선진국 경기침체와 증시침체 등으로 인해 6개월 이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을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가 9월 들어와 103.9로 하락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기전망 기대지수와 소비자 평가지수도 하락 추이를 나타내어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투자중 설비투자는 6~7월의 부진에서 9월들어 다소 호전되는 기미로 원동기와 공작기계 중심으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는 8월 들어와 기상여건 악화로 둔화추이를 보였으나,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4분기 및 내년에는 증가할 것이다.

나. 산업활동

제조업 생산활동은 7-8월 들어 수출호조

와 소비증대 등에 힘입어 계속 활발하게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선박, 비금속광물, 음향통신은 부진하지만 자동차와 사무기기 업종은 신장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반도체도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출하지수는 수출용 자동차를 중심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업 활동은 7-8월에도 대체로 양호하여 도소매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고 일일평균 주식거래대금의 증가율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항만·항공 물동량의 신장세가 확대되어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연말과 내년에는 대부분의 산업활동이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위축될 것이다.

다. 임금과 물가

실업률이 7-8월중 3.0%로 나타난 것은 기상여건 악화로 건설업과 도소매업의 취업자 감소로 소폭 상승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또 하계휴가 등 계절적인 요인도 작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임금은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여 전년동기대비 10%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들어 소비자물가는 태풍에 의한 채소류 가격상승, 원유가 상승과 추석 수요증가 등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2.5~3.2%의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말과 내년에는 태풍피해와 경기하강 등 각종 악재로 인해 물가는 상승하고, 임금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 대외거래

수출은 8-9월 들어서도 전체적으로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특히 품목별로는 영업일수 감소 등으로 반도체, 컴퓨터 등 대부분의 주력 수출품목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자동차는 소폭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반면 수입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는데, 품목별로는 원자재중 원유수입의 감소로 낮은 증가에 머물렀으나, 소비재와 자본재는 25%이상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결국 경상수지는 8~9월에 약간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는 국내 여건상 경상수지의 흑자시현이 어려울 전망이다.

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특히 품목별로는 영업일수 감소 등으로 반도체, 컴퓨터 등 대부분의 주력 수출품목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자동차는 소폭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반면 수입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는데, 품목별로는 원자재중 원유수입의 감소로 낮은 증가에 머물렀으나, 소비재와 자본재는 25%이상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결국 경상수지는 8~9월에 약간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는 국내 여건상 경상수지의 흑자시현이 어려울 전망이다.

III. 업종별 지역별 경제현황과 전망

1. 실물부문

가. 업종별 경기현황과 전망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업계의 파업종료로 7-8월들어 생산은 승용차, 상용차 등 모든 부분에서 전월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형승용차의 생산증가율이 55%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판매에 있어서도 특소세의 인하 종료 시한을 앞두고 판매량이 48%정도 증가했으며, 수출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여 40% 가까이 증가하여 호황국면을 유지했다. 그러나 연말에 접어들면서 미국과 이라크 전쟁 가능성 증대, 유가인상 등 세계경제의 불안한 상황의 출현으로 인해 자동차 수요가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도에도 이와같은 기조는 크게 변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산업의 경우 산업용 전자상품은 7-8월에 들어 통신기기와 정보기기 모두 증가폭이 작년보다 37%정도 확대되었으며, 특히 중국수출이 급증하였다. 품목별로는 무선전화기와 정보기술 상품들의 해외수출 급증과 컴퓨터 제품의 수출증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가정용 전자상품은 전년보다 13%정도 수출이 증가하고 내수도 포함세를 나타내면서, 칼라텔레비전, 비디오카메라, 냉장고 순으로 소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연말로 접어들면서 경기불황국면의 감지, 정세불안, 카드이용 한도제약 등으로 인해 내수와 수출이 모두 서서히 감소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추이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산업은 수출이 전년대비 61%나 증가하여 2000년이후 최고의 수출증가율을 나타내어 호황을 기록했으며, 특히 미국, 일본 등에 수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우리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세계 반도체 소비증대로 설비가동률도 증가하고 있어, 하반기와 내년의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기계산업의 경우 금년 7-8월 들어와 생산과 출하가 약간은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은 중국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에는 경제불황 조짐으로 인해, 내수의 기계수주가 줄어들고 수출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철강산업은 7-8월에 대체로 회복세를 나

타내어 내수가 전년보다 14%이상 증가하였으며, 수출도 냉연강판과 열연강판이 집중 증가하여 약 10%정도 증가하고 있다. 연말과 내년에는 경기위축이 예상되어 내수와 수출이 약간 감소할 것이나, 경기하강기에 대한 반대 수요의 증가로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석유화학 산업은 7-8월들어 생산은 시설 증설과 공정개선으로 전년보다 약 7%정도 증가하였으며, 소비중 내수는 약 4%, 수출은 약 15%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연말과 내년에는 경기악화로 약간 증가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산업은 7-8월에 들어 전년보다 약 6%정도 수출이 증가하고 내수도 8%정도 증가하였으며, 수입도 약 1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수중에는 신사복보다 캐주얼복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연말과 내년에는 경기위축으로 수요가 감소할 것이나, 고소득층의 이른바 '명품병'으로 인해, 수입 의류 수요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조선산업은 탱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종에서 수출이 감소세를 보여 작년보다 약 11% 감소하였고, 특히 대형선박의 신규 조선편가 하락으로 전체적으로 불황상태이므로 내년도에 조속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지역별 경제현황과 전망

(1) 서울·경인지역

서울·경인지역의 제조업은 금년 3분기 들어 수출기업, 내수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등 모두 큰 폭의 경기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통신장비, 사무기기, 전기기계, 전자제품 등이 생산, 소비가 15%정도 줄어들어 경기하락율이 큰 상태이다. 그러나 자동차, 반도체 산업은 생산, 소비 모두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연말과 내년도도 전분기보다 지표가 하락하였으나 하락폭이 줄고, 특히 영상 및 음향장비, 자동차, 유화 제품 등에서 경기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비제조업인 서비스업 등에서는 큰 폭으로 경기가 하락하고 있고 연말에도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므로 내년도 급격히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 강원지역

강원도 지역의 금년도 3분기들어 제조업 중 음식료품, 1차금속을 제외하고는 매출액, 가동률, 채산성, 투자 등 대부분의 지표들이 하향추세에 있으며, 특히 내수기업만 소폭 상승했을 뿐 수출기업은 대폭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말과 내년도에도 제조업은 약간 감소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비제조업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나타내고 광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은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연말과 내년도에는 경기상승세의 위축으로 경기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비제조업 부문도 하락세로 반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대전·충남·북 지역

대전·충남·북 지역의 금년3분기 경기는 국제유가 급등세와 지역내 주력수출상품인

반도체 가격의 하락세의 지속, 미국경제의 회복지연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인해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출, 생산, 출하 등 대부분의 항목들이 악화되었으며 하반기와 내년도에도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조업은 대부분 큰 폭으로 경기지수가 하락하여 악화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과 내년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비제조업의 경우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의 하락이 가장 큰 폭을 나타내었으나, 연말과 내년도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4) 광주·전남·북 지역

광주·전남·북 지역의 금년도 3분기 경기는 생산, 수출, 매출 등 모든 면에서 제조업 부문은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중소기업이 모두 악화됐지만,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따라서 하반기나 내년도에도 국내외 경기가 급속히 호전되지 않는 한 제조업 부문의 경기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비제조업의 경우 생산, 채산성, 고용수준 등 대부분의 측면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 및 내년도에도 회복세로 반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5) 대구·경북지역

대구·경북지방의 금년도 3분기 경기는 제조업의 경우 생산은 전년보다 다소 둔화세로 돌아섰는데, 특히 기계장비업, 컴퓨터와 사무기기업이 감소한 반면, 자동차, 제1차금속 등은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특히 수

출은 철강, 금속과 전기·전자 업종에서 증가세가 확대되고 무역수지도 흑자폭이 전년보다 확대되었다. 물가는 호우피해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교양오락비가 상승하였지만, 보건의료비의 하락으로 약간 오른 상태이다. 한편 비제조업의 경우도 생산, 매출이 감소하여 경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음식숙박업과 관광업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말과 내년에도 제조업이나 비제조업에 관계없이 국내외 환경이 호전되지 않는 한,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6) 부산·경남지역

부산 경남지역의 금년 3분기 경기는 매출, 생산, 가동률 등 대부분의 지표가 하락세를 보여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 등 기업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악화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중화학공업과 내수기업은 악화세가 둔화되고 있다. 비제조업도 전분기에 비해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월드컵 특수의 종료로 크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연말과 내년에도 국내외 경제의 큰 변화가 없는 한, 경기 하강세는 업종에 관계없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 금융부문

가. 지역별 금융현황과 전망

(1) 지역별 은행대출 동향

2002년 상반기중 은행대출은 2001년 상반기의 16조 8,887억원 및 하반기 29조

6,907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59조 5,453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대출이 23조 9,34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대출은 35조 6,111억원이 증가하였다. 지방대출을 권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상반기중 22.5% 증가하였으며, 영남이 16.4%, 충청이 16.3%, 호남이 12.6%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2년 6월말 은행대출 잔액중 지방대출액은 233조 5,750억원으로 전체의 56.0%의 비중을 차지하여 총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상승함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방은행의 퇴출 및 지방중소기업의 취약한 신용도 등으로 하락하였던 점유율을 회복하였다. 특히 총예수금에 대한 총대출금 비율인 예대비율도 서울지역이 2001년말 58.6%에서 2002년 6월말 61.1%로 2.5%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친 반면, 지방은 87.0%에서 96.6%로 9.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금융부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지방 대출비중 상승요인

지방대출 비중이 상승한 원인은 첫째,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규모 확대, 지원금리 인하 및 지원대상 업종제한 폐지와 아울러 정부의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인하, 자금의 지방배분 확대 등 그간 꾸준히 추진해 온 지방금융활성화 대책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둘째, 서울에 있는 본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기업 대출은 2002년 상반기중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서울 편중도가 낮은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증가한 때문이다. 셋째, 지방의 가계대출증가가 보다 두드러진 것은 가계의 소비증가 및 부동산 매입 등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자영기업들이 자금조달원으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은행대출 잔액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 56.0%는 지방의 실물경제 비중 78.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이 요구된다.

나. 강원도의 금융현황과 전망

(1) 강원도의 자금동향

강원지역 기업의 금년 3분기 자금사정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분기보다 하락한 97을 기록하여 자금사정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문별로는 기계장비 등 제조업이 소폭 상승한 반면, 음식숙박업 등 비제조업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자금사정은 호전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내기업의 외부자금수요 BSI는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117로 나타나 설비투자나 신규사업진출로 자금수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금조달사정 BSI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105으로 나타나 자금조달 여건이 전분기에 이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제조업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비제조업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기업의 내부자금조달 비중은 76.8%로 전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며, 외부자금조달 경로는 은행권의 비중이 다소 하락한 반면 비은행권 비중은 소폭 상승하였다.

현금결제비중은 판매거래의 경우 전분기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구매거래의 경우에는 소폭 감소하였으며, 어음결제기간은 판매대금의 경우 다소 확대되었으나 구매대금은 소폭 축소되어 자금사정이 약간씩 악화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 강원도의 자금전망

2002년 4분기중 자금사정 전망BSI는 105로 3분기보다 약간 기준치를 상회하여, 기업의 자금사정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외부자금수요 전망BSI의 경우 110으로 나타나 외부자금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3년에는 국내외 경제의 불안가중과 미국과 이라크 전쟁발생 가능성 등으로 원유가격이 급상승하여 증권시장이 악화되고, 개인소비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중심의 강원도 경제체는 이에 대한 자금조달 방안 등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정책제언

2002년들어와 우리나라 국민들은 IMF부채를 조기에 상환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가 회복된 것으로 착각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재정 및 무역 양대적자, 일

본의 경기회복 미진, 유럽의 경제통합에 따른 국가간 갈등 등으로 해외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고, 미국과 이라크 전쟁 가능성 고조, 국제유가의 급등, 미국과 일본의 주가급락 등은 우리경제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2002년에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투자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영동지방과 영남지방은 태풍루사와 폭우로 산업경제의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실상을 파악해 보자. 우선 실물부문중 제조업별 경제동향과 전망을 살펴보면, 자동차, 전자, 반도체, 철강 등은 하반기와 내년도에도 상반기와 같이 보합세나 약간의 소비증가로 인해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섬유, 조선, 유화 등은 국내외에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최근과 같이 연말과 내년에는 더욱 악화되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역별 경제동향과 전망을 살펴보면 서울·경인지역의 자동차, 반도체, 유화업, 대구·경북지역의 철강, 자동차, 전자업, 부산·경남지역의 기계업 등은 현재와 같이 연말과 내년도에도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여 호황세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대전·충남·북 지역, 광주·전남지역은 연말과 내년에는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아울러 강원도 지역도 최근 제조업의 경기둔화가 연말과 내년에는 비제조업으로 확대될 것이다. 다만 태풍피해복구 작업으로 일부 건설업만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다음으로 금융부문의 지역별 금융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면, 2002년 6월말 은행대출잔액중 56.0%인 233조 5,750억원이 지방대출액이나 지방실물경제 78.3%보다 낮다. 또 서울과 지방간 예대비율도 2001년말 58.6%에서 2002년 6월말 61.1%로 2.5%포인트 상승했으나, 지방의 동기간 비율은 9.6%포인트 상승하여 지방금융비중이 증가했다.

이런 상태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경제정책을 일부분이라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는 2001년말 현재 60%정도에 그치고, 강원도는 30%에 미달하므로 세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신정부에서는 전반적인 세제 및 재정개혁과 함께 지방과 중앙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법을 제정·시행해야 한다. 둘째, 각 지방은 개성있고 차별화된 이벤트를 개발하여 지역의 차별성을 형성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이 보유한 문화유산, 자연환경 등 유무형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영화나 텔레비전의 촬영장소 제공 등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발굴해 나가야 한다. 셋째, 기존 산업의 디지털화나 비즈니스 모델전환, 광역지역산업 네트워크 구축을 기조로 산업을 발전시키며,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신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해 나가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자치단체 상호간, 주민과 중앙정부간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여 각종 시설건설이 어려우므로 지역간,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와

협력을 더 강화하며, 아울러 해외자치단체와 국제교류를 강화하여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차원에서 국제교류도 정책당국이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의 국제화 능력을 함양하여 국제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참고문헌

강두용외 3인, 『제조업 경기실사지수』, 산업연구원, 2002. 7
 대한상공회의소, 『분기별 경기현황과 전망』, 2002. 9
 삼성경제연구소, 『분기별 경기현황과 전망』, 2002. 7
 -----, 『CEO information』, 2002. 8

통계청, 『경제Brief』, 2002. 9
 -----, 『경제통계자료집』, 2002. 9
 통계청강원통계사무소, 『8월소비자 전망과 조사』, 2002. 9
 한국산업은행, 『KDB 산업경기전망』, 산업조사정보, 2002. 9
 -----, 『월간KDB 산업리뷰』, 조사부, 2002. 9
 한국은행, 『지역별 경제동향과 전망』, 각 지역 본부, 2002. 9
 -----, 『지역별 기업경기 실사조사』, 각 지역 본부, 2002. 9
 -----, 『경제통계연보』, 경제조사부, 각 연도
 현대경제연구원, 『분기별 경기현황과 전망』, 2002. 9